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작품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ama@ntck.or.kr



창작공간 ∞ 희곡

입체낭독공연

국립극단 소극장 판

2022.2.18. ~ 2.27.



금붕어 훔쳐어

2022.
2.18.금 -
2.20.일

금 19:30
토, 일 15:00

남들보다 유독 질식되고 자주 가라앉는 삶 속에서, '송지'는 쌍둥이 언니 '호연'과 열대어 한 마리, 그리고 시와 함께 살아간다. 그 삶이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졌던 날, 송지는 자신의 SNS 게시물에 누군가에게 도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사사로운 글부터 일상 사진, 사소한 취향, 부끄러움에 지웠던 치부까지…… 송지의 삶을 통째로 도용하고 있던 사람, '이달'은 자신에겐 없는 송지만의 감성을 동경한다. 송지는 이달이 자신을 얼마나 훔쳐가는지 확실히 시험해보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가짜를 전시하고, 누군가는 가짜를 위해 진짜를 버린다. 그렇게 경계가 사라져버린 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한다. 어느 쪽에도 섞일 수 없는 서러운 경계와 그 최전선에서 헤엄치는 개인에 대하여.

만드는 사람들

작 문보령 연출 김진아 무대 장호 조명 정유석 음향 나온유
영상 손영규 의상 온달 조연출 지구
출연 권형준 송하늘 이은조 정슬기

말숙과 해미와 눈

2022.
2.25.금 -
2.27.일

금 19:30
토, 일 15:00

말숙은 한밤중에 향한 병원 응급실에서 해미를 찾는다. 두 사람은 어딘가 애매한 사이처럼 보인다. 집주인과 세입자. 딱 그 정도의 관계. 말숙은 늘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해미가 불편하고, 자연스레 해미와는 정반대였던 하영을 떠올린다.

하영은 말숙의 손녀였다. 어느 겨울밤, 말숙과 함께 지내던 하영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상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유서 한 장 없이 떠났기 때문에 말숙은 아직도 언제나 행복해 보이던 하영이 죽은 이유를 모른다. 해미가 다친 후 말숙과 해미는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둘의 관계는 이전과는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말숙은 해미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하영의 모습을 본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하영의 모습을.

만드는 사람들

작 손정원 연출 신명민 조명 정유석 음악 While asleep(김희은, 서진영)
음향 윤찬호 의상 오현희 분장 이지연 조연출 김선빈
출연 박희정 백현주 이지혜

작가의 글

현대에는, 우리의 치열한 현실 외에도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생겨났다. 내가 차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방비한 현실과는 달리, 그 온라인 세계만은 우리가 직접 쌓아 만들 수 있다. 문득 그렇게 완성된 댐을 돌아본다. 용도가 전복되어 아예 바다가 되어버린 나의 댐을. 이 극은 이러한 두 세계의 엇갈림에 관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물들을 통해, 엇갈린 것이 단순히 두 세계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한다.

이것은 비단 송지와 이달의 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독을 쌓고 경계를 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심해야겠지, 우리에겐 아가미는 커녕 찌그러진 부레조차 없으니.

작가 문보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여러 공연에 스태프로 참여해가며 말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부유하는 말을 주워다 애써 뭉쳐보지만 한다.

언제쯤 잘 빚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써 치대다 보면 단단한 돌덩이로나마 어떤 땅에 뿌리내리지 않을까 무작정 일을 벌이고 있다.

작가의 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울을 안고 산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우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 대해 조금도 알 수 없을까?

이 작품은 어느 이십 대 여성의 죽음과 그가 떠나간 이유, 그리고 여전히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노인과 청년이라는 간극을 지닌,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사람의 겨울이 무대 위에서 흘러간다.

이를 통해 오늘날 힘든 세상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더는 아무도 스스로 죽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썼다.

작가 손정원

첫 희곡입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빙빙 돌며 고민해 봐도 역시 글을 쓰고 싶어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출발점에 발을 들여 두려움도 기쁨도 큼니다.

다양하고 따뜻한 색의 글을 부지런히 종이에 채워 넣는 작가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연출의 글

온라인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솔직한 내면을 드러낸다. 일상의 관계에서 눌러둔 말들을 온라인에 풀고, 비슷한 외로움을 찾아 감응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홀로 감내할 몫이 다시 남는다.

송지, 이달, 호연, 성현은 이십 대의 초입과 중반에 있다.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덧나지 않을 방법을 찾아 익힌 사람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반복할 시간은 부족했던 이들이다. 자신의 방법이 틀렸을 때 크게 당황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들. 그중에서도 송지와 이달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금붕어 휠체어>에는 둘의 외로움이 온라인에서 포개어지고, 또 각자의 언어로 나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그 뒤에 남은 '혼자의 몫'이 쓸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출 김진아

극단 지금아카이브 대표

지금 함께 살고 있어도 좀처럼 만나게 되지 않는 이들 각각의 시점과 시아가 항상 궁금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흘러들어갈 틈을 열고자 한다.

nowarchive.kr

<결투> <티타임/ 밀사의 첫잔> <2020 코미디캠프: 틈> <2021 코미디캠프: 어린 시절> <테스트>
<아주 친절한 (페미니즘) 연극> 외

연출의 글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는 수치를 기록해,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자살시도를 한 집단이라고 한다. 또 30대 여성은 가장 우울점수가 높은, 성별 세대별 중 제일 심각한 우울 위험군이라고 발표가 되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다. 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70대 여성과 그 셋방에 들어온 또 다른 20대 여성의 이야기.

연출 신명민

사회 속 다양한 시선을 다루고자 한다.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2019 한국극예술학회 올해 작품상 연극부분

<한성의 이발사> <우리별> <혼마라비해?> <레라미 프로젝트> <미래의 여름>
<철가방추적작적> <낯선 이> 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상시투고에

총 145편의 희곡이 국립극단 [창작공감: 희곡]의 문을 두드렸다.

지면을 채운 이야기가 모두 다르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언어의 결 역시 달랐지만,

세상을 향한 작가들의 진지한 말 걸기가 인물들의 윤곽에, 그들 언어의 행간 속에 깊이 스며 있었다.

연극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희곡은 추후 연출과 배우 및 스태프들에 의해 추가로 채워져야 하는

수행적 텍스트이다. 무엇보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 소위 보편의 윤곽을

함께 구성해가는 잠재태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3차에 걸쳐 총 4편의 희곡을 낭독회에 초대했다.

그 가운데 다음 두 작품을 국립극단 [창작공감: 희곡]의 2022년 입체낭독공연 작품으로 다시 올린다.

두 작가의 섬세한 언어에 연출의 시선이 얹히고, 동시에 배우들의 생각과 감각과 만나면서

무대 위에서 어떤 식으로 입체화될지 매우 기대가 크다.

문보령 작 금붕어 월채어

각각의 욕망이 충돌하는 가운데 되레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송지에게 어떤 삶의 버팀목도 되지 않는다. 그런 그는 부레병을 앓으며 어항에 갇혀 힘겹게 유영하는 금붕어와 닮았다. 송지가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자신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를 꿈꾸는 이달은 우연히 송지의 글을 접하면서 비로소 미처 마주할 수 없던 자신과 하나하나 만나게 된다. 이달이 SNS와 자기 방의 어항을 오가면서 연신 송지의 글을 하나하나 복기해가는 것은 일종의 성찰적 마주하기이다. 이달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드디어 송지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동시에 세상이란 어항 속에 갇힌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송지에게 거울이 되어 돌아온다. 이제 송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달에게 송지가 그랬듯, 송지에게 이달은 어떤 금붕어 월채어가 될까.

손정원 작 말숙과 해미와 눈

말숙의 집에는 해미라는 한 20대 여성이 세 들어 산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그다지 교류가 없다. 희곡은 어느 날 내리는 날, 해미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쳐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숙이 응급실로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말숙은 해미에게 다가간다. 동시에 해미를 통해 그녀의 마음 속에 묻어 둔 손녀 하영에게 다가간다. 하영은 몇 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말숙은 아직도 그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말숙에게 하영은 언제나 착하고 밝게 자신의 삶에 열심이었던 손녀였기 때문이다. 말숙이 하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해미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주하영 씨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같은 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말숙과 해미의 시간 사이로 말숙과 하영의 시간이 차곡차곡 교차되면서 해미이자 하영인 오늘날 20대 여성의 삶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희곡은 죽은 하영에 대한 진정한 기억과 애도이자, 동시에 젊음과 여성이라는 수사 뒤에서 힘겹게 각자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채워진다.

운영위원 윤성호, 이경미

창작공감 : 희곡

경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통 창구로,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곡을 찾습니다.

국립극단은 동시대 화두를 탐구하는 희곡을 찾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 [창작공감: 희곡]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모든 희곡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읽고 검토합니다.

추천작에 한해 낭독회를 진행하고, 작가, 배우, 관계자 및 관객과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작가가 희곡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창작희곡과 작가들을 만나는 열린 창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희곡 발전가능성을 세심히 살핀 후

최종선정작을 대상으로 입체낭독공연을 제작합니다.

운영위원 윤성호 이경미

무대기술 총괄 정광호

제작감독 홍영진

무대감독 김정빈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장도희

의상감독 신은혜

객석 설치 쇼먼트(대표 김나리)

조명프로그램머 오서린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마케팅 이승이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티켓 김보전

매표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이민경 임지은 송솔 김지수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금붕어 월체어>

무대·소품 제작 아이엠 마니페스트(대표 장호)

조명 오퍼레이터 배선희

음향&영상 오퍼레이터 지구

무대진행 김영주

<말숙과 해미와 눈>

조명 오퍼레이터 민제희

음향 오퍼레이터 김선빈

무대진행 강수경

홍보몰디자인 리프트오프(대표 이진우)

옥외광고 영기획인쇄(대표 서성원)

기록 사진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기록 영상 오슬로프로젝트(대표 이영관)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프로그램 인쇄 인타임(대표 김종민)

작품개발 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한나래 조유림

제작진행 박설아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